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진로불안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오 영 아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BJW-self)과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경상도 지역 소재 11개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최종 301부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불안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절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평균 수준일 때만 나타났다. 넷째,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통해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평균 수준일 때에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진로불안

† 교신저자 : 정남운,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Tel : 02-2164-4469, E-mail : woon@catholic.ac.kr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진로에 관한 고민과 선택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입시 준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자기를 탐구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였을 대학생 집단에게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진로에 대한 불안은 진로를 결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선택한 진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 중에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처럼 진로에 대해 두려움, 근심, 걱정, 긴장 등의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주관적 상태를 ‘진로불안’이라 정의할 수 있다(유소영, 연구진, 2021).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진로불안은 진로몰입과 진로탐색의 빈도를 떨어뜨리고(Kautish, Walia, & Kour, 2021; Vignoli, 2015),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게 함으로서 진로준비 행동 수준을 낮추며(오한솔, 이지혜, 2020), 우울을 야기하고(이형하, 권충훈, 2020),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문화진, 2019b; 서성식, 이종연, 2017). 또한 진로 선택 불안은 진로 정보 추구 활동과 부적적으로 관련되며(Germeijs, Verschueren, & Soenens, 2006),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Pisarik, Rowell, & Thompson, 2017; Saka, Gati, & Kelly, 2008). 이처럼 진로불안은 대학생들이 진로의 준비와 선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로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생의 진로불안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는 개인이 더 높은 불확실성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작동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은 조직과 노동 시장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들과 더불어 증

대해 왔다(Trevor-Roberts, 2006). 이러한 불안정한 변화들과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주 대두되는 공정성에 대한 이슈는 개인이 진로를 준비하고 성취하는 과정과 결과를 전망하는 데에 작용하는 또 다른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준(2018)은 주요 분야별 사회공정성 인식에 대한 최근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한국행정연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그 결과 취업기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2014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다른 모든 연령대에 비해 취업기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7). 대부분 20대로 이루어진 대학생 집단에게 공정성은 이미 진로의 성취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공정성 인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사는 세상이 공정하며 노력한 만큼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Lucas, Alexander, Firestone, & Lebreton, 2007). BJW는 개인에게 세상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이 환경에 대해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게 한다(Dzuka & Dalbert, 2002). 또한 이러한 확신은 개인이 미래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반대로 정의로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Donat, Peter, Dalbert & Kamble, 2016). 이러한 맥락에서 BJW라는 자원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진로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불안정하다고 지각하고, 미래의 진로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기보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로 BJW가 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언하고 확인한 연구들이 있으며(임수현, 2019; 최현주, 신혜진, 2018; Otto, Boos, Dalbert, Schöps, & Hoyer, 2006), 이러한 흐름은 진로에 대한 불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태현과 장진이(2019)의 연구에서는 BJW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지각할 경우 정당한 접근을 통한 취업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 불안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구태현, 장진이, 2019).

한편 BJW는 또다시 개인적인 믿음(BJW-self)과 일반적인 믿음(BJW-others)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BJW-self는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고 믿는 것이고, BJW-others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Lipkus, Dalbert, & Siegler, 1996). Dzuka와 Dalbert(2002)는 BJW-self를 일상 업무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요한 삶의 사건에 대처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자원으로 보며, BJW-others에 비하여 BJW-self가 정신 건강 예측 및 대처에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BJW-self는 개인의 삶의 만족감, 긍정적인 정서,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지만, BJW-others는 이들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Dzuka & Dalbert, 2002). 또한 Lipkus 등(1996)의 연구에서도 BJW-self는 인식된 스트레스, 자존감, 우울 증상, 전반적인 기분 수준, 삶의 만족도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BJW-self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데에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Kamble과 Dalbert(2012)의 연구에서는 BJW-self가 불안으로 측정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임수현(2019)과 Otto 등(2006)의 연구에서는 BJW-self가 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BJW-self는 진로의 맥락에서도 다루어지는데, BJW-self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그 예로 들 수 있다(김수환, 2020; 송현희, 2021; 안진아, 이지은;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BJW-self가 개인의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JW는 진로 과정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최현주와 신혜진(2018)에 의하면 낮은 BJW는 노력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진로의 속성에 가까우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감당하지 못한다면 불안의 수준은 과도하게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을 초점화한 개념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이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상황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수준에서의 부정적인 반응 경향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Dugas, Buhr, & Ladouceur, 2004). Dugas 등(2005)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은 부정적이며 피해야한다고 믿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한 BJW는 진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가

불공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경향성을 증가시킴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Otto, Glaser, 그리고 Dalbert(2009)는 BJW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 상황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보았고, 연구를 통해 BJW가 강한 사람들은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에 대해 덜 걱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즉, 강한 BJW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의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로, Nudelman, Otto 및 Dalbert(2016)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관련 위기상황에서 작용하는 BJW의 대처기능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BJW가 강한 학생들이 취업 기회 등의 진로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며 진로와 관련하여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무력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강한 BJW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켜 진로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도록 함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높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JW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관련성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차보민(2021)은 그의 연구에서 BJW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안진아와 이지은(2019)은 BJW-self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낮은 BJW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걱정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요소로 확인되어 왔으며(Dugas, Gagnon, Ladouceur, & Freeton,

1998; Dugas, Gosselin, & Ladouceur, 2001, Ladouceur, Gosselin, & Dugas, 2000), 최근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광목, 2020; 문화진, 2019a; 서성식, 이종연, 2017; 유소영, 연구진, 2021).

종합하면, 불확실한 진로 상황에 처한 대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고 성취하는 과정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게 된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불확실한 진로 상황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고자 하여 불안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JW-self와 진로불안의 관계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매개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진로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주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Trevor-Roberts, 2006),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의 맥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예: 김경욱, 2009; 김나래, 이기학, 2012; 문화진, 2019b; 이아라, 이주영, 2015). 좀 더 구체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사회비교경향성(우지윤, 김영화, 2021; 유소영, 연구진, 2021)을 제시하였고, 조절하는 변인으로 계획된 우연기술(문화진, 2019a)의 역할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고광목(2020)은 그의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탄력성이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취업 및 고용불안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을 다룬 연구들은 지각된 진로장벽과 삶의 의미(강인혜, 유금란, 2020), 진로 계획하기(Chen & Zeng, 2021), 자기자비와 진로고정신념(정윤경, 신주연, 이보람, 2019)과 같은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진로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과 불안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진로와 관련된 불안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들에 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인내하기 어렵게 하는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BJW-self를 제시하고, 이러한 외적 요인을 조절하는 내적 요인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두 개념은 각각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므로 개인의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이러한 믿음들은 둘 다 미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도록 도움으로서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Bègue(2005)는 심리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들에게 다른 학과와 비교하여 취업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제시하며 이러한 진로 위기 상황에서 BJW-self와 자기효능감이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강한 BJW-self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과 결합하여 불리한 사회적 비교 상황과 어두운 취업 전망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Bègue(2005)는

BJW-self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이 미래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는 ‘장래 진로 기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완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BJW-self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합하고 상호작용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즉 자기효능감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최보영 외, 2011; Taylor & Betz, 1983). 이 개념은 Hackett와 Betz(1981)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연구에 적용하여 진로관련 자기효능감(career related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한 것을 Taylor와 Betz(1983)가 척도로 개발하면서 발전한 변인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후천적인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교육 등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으며(이종찬, 2013), 자기효능감과 달리 진로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능력을 스스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아라와 이주영(2015)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직업정보를 찾으며, 목표를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실제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의 기대수준 및 강도와 불안의 수준이 반비례하므로 자기효능감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불안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Taylor와 Betz(1983)

도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 기대치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불안의 부적 상관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으며(김민정, 김봉환 2007; 차영은, 김시내, 강재연, 2015), 김홍섭과 김정섭(2015)의 연구를 비롯한 몇몇 연구들에서는 진로 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수록 불안이 높아진다는 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불안의 부적 관계를 통해 확인하였다(박윤희, 2017; 방희원, 조규관,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불안뿐 아니라 진로불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최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불안의 부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도 존재한다(양명화, 2021; 옥혜란, 2021).

Buhr와 Dugas(2002)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피해야한다고 믿으며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기능하는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Saka 등(2008)에 의하면 특정 영역에 대한 낮은 효능감 기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역과 관련된 과제와 도전을 피하도록 이끌 수 있는데, 이는 진로라는 영역에도 해당될 수 있다. 즉, 개인이 진로 영역에서 드러나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과 인식을 가짐으로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며 견디기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김경욱(2009)의 연구, 그리고 진로탐색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부적 관계를 확인한 황진아와 김은하(2016)의 연구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Dalbert(2001)에 따르면, BJW가 강한 개인은 장기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여기는 자원들에 투자하는 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느끼며 그 과정이 공정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데, 이러한 믿음의 수준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자원들을 알고 장기적 목표 성취를 위한 과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BJW-self가 약한 대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즉 진로결정 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불확실성을 더 잘 견디리라고 본 것이다. 또한 BJW-self가 강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다면, 불확실성과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강화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높이고 진로불안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BJW-self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21세기에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맞닥뜨린 진로 환경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로 불안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작용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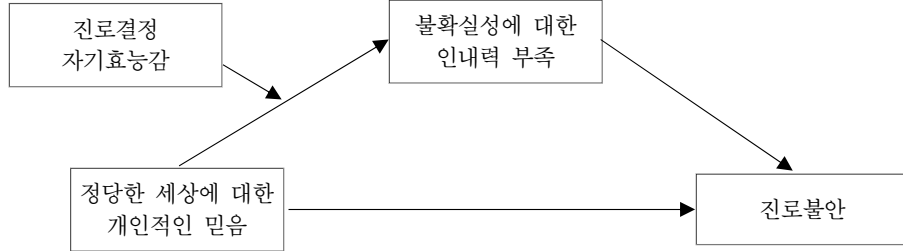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조절된 매개효과)

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진로불안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진로 상담의 개입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BJW-self와 진로불안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셋째,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통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으며,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경상도 지역 소재 11개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각 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수업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여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설문의 응답시간은 약 15분 정도였으며 설문을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보상으로 편의점 쿠폰을 제공하였다.

응답자 중 1학년은 총 82명이었는데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기간이 4월경(4월 23일부터 한 달간 수집)으로 입학한 지 두 달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기였으므로 진로 관련 경험 및 관심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301명의 성별은 여자가 222명(73.8%), 남자가 79명(26.2%)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21.9세($SD=1.73$)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1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은 105명(34.9%), 2학년은 58명(19.3%)이었다.

측정 도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Lucas 등(2007)이 개발하고 김은하 등(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 중 개인적인 믿음(BJW-self)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은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며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은하 등(2017)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 평가, 직업 정보, 목표 선택, 미래 계획, 문제 해결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내가 관심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직업 선택과 관련된 가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 점수만을 사용하였는데 Betz 등(1996)이 보고한 CDMSES-SF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고,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본 연구에서는 Freeston, Rhéaume, Letarte, Dugas, 그리고 Ladouceur(1994)가 개발하고 최혜경(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IUS)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측정

하였다. IUS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 및 불확실함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통제 시도 등을 측정하는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예: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행동을 계속할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는 참을 수가 없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reeston 등(1994)의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최혜경(1997)의 연구에서는 .9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진로불안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조규판(2008)의 취업불안 척도를 유기은(2016)이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묻는 문항으로 변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취업불안 척도는 취업불안상태, 취업불안 유발상황, 취업불안 유발요인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기은(2016)은 연구에서 불안한 상태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취업불안상태'에 해당하는 10문항에 대해 '취업'이라는 단어를 '진로'로 각색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기은(2016)의 연구와 동일하게 진로에 대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불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유기은(2016)의 연구에서 진로불안 상태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한 10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나의 진로만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다.', '나는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소화가 잘 안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규판(2008)의 연구에서 취업불안상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와 유기은(2016)의 연구

에서 진로불안상태의 내적 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진로불안상태 10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도 동일하게 .94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2.0을 사용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 나이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SPSS PROCESS Macro 3.5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odel 4를 적용하였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관계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model 1을 이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시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의 평균중심화를 진행하였고, 조절 변인의 세 값($M+1SD$, M , $M-1SD$)에서 단순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model 7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한 유의성 검정 시 표본 수는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 BJW-self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들 다에 대해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불안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각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M	SD
1. BJW-self	-				5.08	0.87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97**	-			2.49	0.51
3. 진로불안	-.223***	.587***	-		2.83	1.01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47***	-.114*	-.341***	-	3.64	0.53

주. * $p < .05$, ** $p < .01$, *** $p < .001$. BJW-self=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매개효과 검증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연구문제 1)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BJW-self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115,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1.120,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BJW-self에서 진로불안에 이르는 총효과는 $B=-.258(p<.001)$ 이었는데 매개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투입되면서 BJW-self에서 진로불안에 이르는 경로의 직접효과가 $B=-.129(p<.05)$ 로 감소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3과 같이 부트스트랩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앞서 표 2에서 진로불안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진로불안에 대한 BJW-self의 직접효과가 여전히 유의하였으므로($B=-.129, p<.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두 변인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변인	B	SE	t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매개변인 모형(종속변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상수	3.075	.170	18.039***	2.739	3.410
BJW-self	-.115	.033	-3.480***	-.180	-.050
종속변인 모형(종속변인: 진로불안)					
상수	.697	.400	1.742	-.090	1.485
BJW-self	-.129	.055	-2.353*	-.237	-.02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120	.094	11.923***	.936	1.305

주. * $p<.05$, *** $p<.001$. BJW-self=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표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효과	B	SE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총효과	-.258	.065	-.387	-.130
직접효과	-.129	.055	-.237	-.021
간접효과	-.129	.041	-.213	-.049

조절효과 검증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연구문제 2)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독립변인 BJW-self는 종속변인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103, p<.01$), 조절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020, p>.05$). 하지만 BJW-self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B=.127, p<.05$). 또한 상호작용항의 추가 도입으로 인한 R^2 의 증가분은 .016($p<.05$)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별로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M)으로부터 1 표준편차 낮은 집단($M-1SD$), 평균인 집단(M), 평균(M)으로부터 1 표준편차 높은 집단($M+1SD$)으로 각각 나누어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값이 낮은 집단의 회귀계수와 중간 집단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높은 값을 가지는 집단의 조건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에서는 BJW-self가 증가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낮아지는 부적관계가 나타

표 4.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상수	2.464	.031	79.558***	2.403	2.525
BJW-self(A)	-.103	.037	-2.793**	-.175	-.0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	-.020	.061	-.334	-.141	.100
A x B	.127	.057	2.225*	.015	.239
	R^2		F		
상호작용에 따른 R^2 증가	.016		4.95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B	SE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M-1SD(-.527)	-.170	.046	-.261	-.078	
M(.000)	-.103	.037	-.175	-.030	
M+1SD(.527)	-.036	.049	-.132	.060	

주. * $p<.05$, ** $p<.01$, *** $p<.001$. BJW-self=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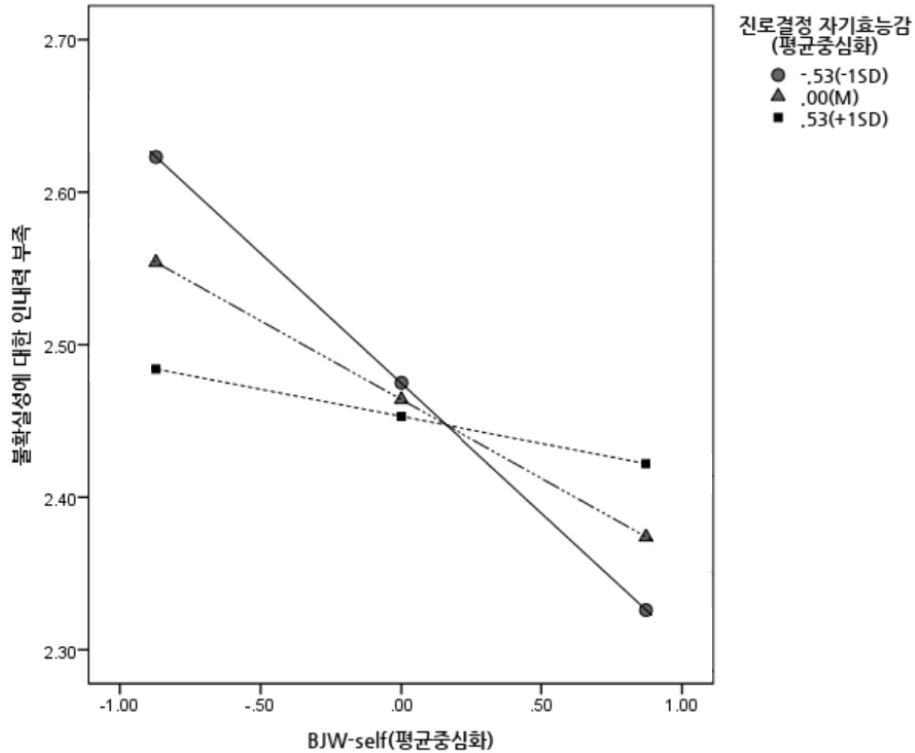


그림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B 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관계

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

BJW-self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조절 매개하는지(연구문제 3)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B JW-self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B=-.103, p<.01$)과 진로불안($B=-.129, p<.05$)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했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불안에 유의한 영향($B=1.120,$

$p<.001$)을 미쳤다. 또한 B JW-self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B=.127, p<.05$)도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매개로 B JW-self가 진로불안으로 가는 과정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는 .142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건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

표 5.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경로	B	SE	t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매개변인 모형(중속변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상수	2.464	.031	79.558***	2.403	2.525
BJW-self(A)	-.103	.037	-2.793**	-.175	-.0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	-.020	.061	-.334	.100
A x B	.127	.057	2.225*	.015	.239
중속변인 모형(중속변인: 진로불안)					
상수	.042	.239	.177	-.427	.512
BJW-self	→ 진로불안	-.129	.055	-.353*	-.02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120	.094	11.923***	.936	1.3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M-1SD(-.527)	-.190	.051		-.286	-.088
M(.000)	-.115	.041		-.195	-.035
M+1SD(.527)	-.041	.058		-.156	.077

주. * $p < .05$, ** $p < .01$, *** $p < .001$. BJW-self=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표 6.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조건부 간접효과	SE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조절된 매개 지수	.142	.008	.276

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평균에 비해 1 표준편차 작거나(M-1SD), 평균(M)일 때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값일 때(M+1SD)는 신뢰구간 내 0이 포함되어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구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평균일 때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매개로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BJW-self)이 어떠한 경로로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먼저 BJW-self와 진로불안 간의 관계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고,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사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를 갖는 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BJW-self와 진로 불안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BJW-self와 진로불안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BJW와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최현주와 신혜진(2018)의 연구에서 BJW가 높을수록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BJW-self가 약한 사람들이 불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임수현, 2019; Otto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들의 흐름에 근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진로의 맥락에서 BJW-self와 불안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를 준비하고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대학생들에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BJW-self가 약할 때 진로불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김은하, 김수용, 2017), 대학생 집단이 겪는

진로에 대한 어려움, 특히 그에 따른 불안을 다룰 때 BJW-self를 확인하고 고려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둘째, BJW-self가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BJW-self가 낮은 대학생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해지고, 이는 또다시 불안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불안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최규환, 정호균, 2018), BJW-self와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안진아와 이지은(2019)의 연구와 흐름을 같이한다. 이는 진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인내력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동시에, 대학생이 가진 BJW-self가 진로의 맥락에서 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최근까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진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역할은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Trevor-Roberts, Parker, & Sandberg, 2019),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의 역할을 주목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다. 개인의 진로에 대한 경험은 절대적인 확신성과 절대적인 예측불가능성 사이의 불확실성 영역에 있는 것이기에(Trevor-Robert, 2006), 진로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피해야 할 요소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루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워지는 사회적 현실이 대학생의 진로 영역에서 드러나는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며, 불확실성을 인내하지 못하는 태도가 또다시 진

로에 대한 불안으로 번지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과 개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불확실성에 대한 사적 경험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류미경, 김재철, 2016; 오영아, 정남운, 2011; 이아라, 2013; 장진이, 2016).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사적 경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진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내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룰 때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자 내용으로서 BJW-self의 역할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보민(2021)은 그의 연구를 통해 청년층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정성 회복과 불확실한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는 비판적 사고라고 제언한 바 있는데, 이처럼 이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어서도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의 부분은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BJW-self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입 방향이 될 것이다.

셋째,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단순 기율기 분석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평균 수준 일 때는 BJW-self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간의 부적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는 BJW-self가 감소하더라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BJW-self가 약할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높이는 경로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JW가 강한 개인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짐으로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기능을 갖는데(Dalbert, 2001; Donat et al., 2016), BJW-self로 인한 신뢰 기능이 약한 개인이 진로 결정에 대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또한 적게 가지고 있다면, 미래의 진로를 위한 투자나 노력에 대한 결과를 더욱 더 불확실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즉, 약한 BJW-self와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합하여 미래 진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더욱 부족하게 만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관하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의 신뢰 수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는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BJW-self의 수준과 상관없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높이는 데에 강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가진 통제소재와 관련하여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통제소재는 개인이 어떠한 결과에 대해 자신의 책임으로 귀인하는지 환경적 책임으로 귀인하는지에 따라 내적통제에 대한 믿음과 외적통제에 대한 믿음으로 나뉜다(Rotter, 1966). 내적통제에 대한 믿음, 즉 내적통제소재를 가진 개인은 성공이나 실패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Rotter, 1966; Weiner, Heckhausen, & Meyer, 1972), 내적통제소재과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의 정적 상관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Kim & Lee, 2018; Luzzo, 1995). 또한 Taylor와 Popma(1990)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제위치가 외부에 있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므로, 진로 상황에서 닦친 불확실성을 견디는 데에도 BJW-self라는 외적 요인에 비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통제소재를 포함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BJW-self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앞서 언급한 조절효과의 결과와 동일하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거나 평균정도 수준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낮은 수준의 BJW-self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을 높이고, 이어 진로불안을 낮추는 간접효과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Bègue(2005)의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Bègue(2005)는 그의 연구에서 BJW-self와 자기효능감이 미래 진로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존감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완충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여 오는 불안에 대해 BJW-self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결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Bègue(2005)의 연구에서는 BJW-self와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연구의 결과는 공통적으로 진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BJW-self의 역할 만으로는 진로불안에 이르는 경로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 과정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학생이 가진 BJW-self가 어떤 심리적 기제를 통해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는 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불확실성’이 진로에 있어서 필연적인 부분임을 알려줄 필요성을 말해준다. 진로의 속성으로서의 불확실성을 개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진로 상황에서 드러나는 불확실성에 대해 직면하고 대처하는 데에 더 편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Tien, Lin, & Chen, 2005).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회피 하지 않고 수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오영아, 정남운, 2011; 이아라, 201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에 초점을 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류미경, 김재철, 2016)이나 수용전념치료(노지윤, 강혜자, 손정락, 2016) 등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한 바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 집단을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에는 개인이 가진 BJW-self라는 외부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 장면에서도 개인의 BJW-self의 영향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조성연과 문미란(2006)은 그들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BJW-self의 역할을 탐색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담 및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해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모두 4년제 대학으로 한정되어 연구 결과를 대학생 집단 전체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BJW의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2012), 추후에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고려한 대상자 표집과 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Sutton과 Winnard(2007)는 영국의 주택협회가 지원하는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BJW의 수준과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를 시간차 없이 측정한 횡단적 연구이

다. 따라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Otto 등(2009)은 종단연구를 통해 BJW가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추후에는 이에 더해 BJW가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변인에 위치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으로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의 5가지 구성요소로 측정되는데(Taylor & Betz, 1983; Betz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들 각각의 수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자료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들을 나누어 측정함으로써 진로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 집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인혜, 유금란 (202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을 통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21-42.
- 고광목 (2020).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탄력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태현, 장진이 (2019).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통제소재와 인지적 유연성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2), 123-145.
- 김경욱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나래, 이기학 (201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 사회 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산업교육연구, 31(4), 111-134.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수환 (2020).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적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 김은하, 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의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1-22.
- 김홍석, 김정섭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223-244.
- 노지윤, 강혜자, 손정락 (2016). 수용-전념치료(ACT)가 과도하게 걱정하는 대학생들의 걱정증상, 상태 및 특성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정서 조절 및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909-923.
- 류미경, 김재철 (2016). 고등학생의 진로 불확실성 수용과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수용전념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 1-28.
- 문화진 (2019a).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 불안의 관계: 계획된 우연기술의 조절 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1), 797-815.
- 문화진 (2019b).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불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445-464.
- 박윤희 (2017).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0(2), 41-61.
- 방희원, 조규관 (201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불안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4(2), 101-116.
- 서성식, 이종연 (201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진로불안의 매개효과: 일반계 고등학생과 특성화 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0(2), 173-197.
- 송현희 (2021).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취업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낙관성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진아, 이지은 (2019). 취업준비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취업스트레스 간 관계: 지각된 성공수준 및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2(3), 179-199.
- 양명화 (2021). 대학생의 진로불안이 진로준비행

- 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에 의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아, 정남운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의 관계: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71-691.
- 오한솔, 이지혜 (2020). 고학년 대학생의 진로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벽의 매개효과와 생애목표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85-108.
- 옥혜란 (2021). 대학생의 진로 불안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지윤, 김영화 (2021). 지방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의 관계: 사회비교경향성과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295-308.
- 유기은 (2016). 사회비교경향성이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목표불일치와 자기격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소영, 연구진 (202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초심상담자의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비교경향성과 초심상담자 어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87-111.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아라 (2013). 진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회피 기반 처치가 한국대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아라, 이주영 (20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따른 진로결정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6(1), 221-241.
- 이중찬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성과의 비교 분석. *취업진로연구*, 3(1), 49-66.
- 이형하, 권충훈 (2020).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불안과 우울 사이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관계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8(2), 167-168.
- 임수현 (2019).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불안의 관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신주연, 이보람 (201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취업불안의 관계: 자기자비와 진로고정신념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9(4), 25-50.
- 장진이 (2016).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 정서조절 어려움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7(2), 121-138.
- 조규관 (2008).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교육학 연구*, 46(2), 53-75.
- 조성연, 문미란 (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31-748.
- 차보민 (2021).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물질주의의 관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환, 정호균 (2018). 관광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진로불안간의 영향관계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발표대회*, 207-215.
- 최보영, 김보람, 김아름,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1).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진로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873-1891.
- 차영은, 김시내, 강재연 (2015).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불안,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탐색. *인간이해*, 36(2), 67-85.
- 최현주, 신혜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불안의 관계: 속박감에 의해 조절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9-38.
- 최혜경 (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행정연구원 (2013). 201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2014). 201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2015).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2017).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2012). 한국 대학생의 성차: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3(3). 33-62.
- 한준 (2018).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통계청 (편), *한국의 사회동향 2018*. (pp. 318-325). 서울: 통계청.
- 황진아, 김은하 (2016). 상담 전공 석사생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적응성간의 관계: 자기성찰을 통한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7(6), 289-31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ègue, L. (2005). Self-esteem regulation in threatening social comparison: The roles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self-efficac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3(1), 69-75.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8.
-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8), 931-945.
- Chen, L., & Zeng, S.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employment anxiety of graduates during COVID-19: The moderating role of career planning. *Frontiers in Psychology*, 12, 694785.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Donat M., Peter, F., Dalbert, C., Kamble, S. V. (2016). The meaning of students'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for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chool-specific well-being. *Social Justice Research*, 29(1). 73-102.

- Dugas, M. J., Buhr, K., & Ladouceur, R. (2004). The role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in etiology and maintenance.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pp. 143-16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Du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Buhr, K., Francis, K., & Phillips, N. A. (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recall and interpret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1), 57-70.
- Dugas, M. J., Gagnon, F., Ladouceur, R., & Freeston, M. H. (1998).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 preliminary test of a conceptual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2), 215-226.
- Dugas, M. J., Gosselin, P., & Ladouceur, R. (2001).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worry: Investigating specificity in a nonclinical sampl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5), 551-558.
- Dzuka, J., & Dalbert, C. (2002). Mental health and personality of Slovak unemployed adolescents: The impact of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732-757.
- Freeston, M. H., Rhéau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6), 791-802.
- Germeijs, V., Verschueren, K., & Soenens, B. (2006). Indecisiveness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Longitudinal associations and the mediational role of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397.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second edition: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Kamble, S. V., & Dalbert, C. (2012). Belief in a just world and wellbeing in India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4), 269-278.
- Kautish, P., Walia, S., & Kour, P. (2021).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areer anxiety and career commit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from India.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8(8): 782-801.
- Kim, N. R., & Lee, K. H. (2018). The effect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career adaptability: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occupational engagement.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55(1), 2-15.
- Ladouceur, R., Gosselin, P., & Dugas, M. J. (2000).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 study of a theoretical model of wor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9), 933-941.
- Lipkus, I. M., Dalbert, C., & Siegler, I. C. (1996).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versus for others: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7),

- 666-677.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uzzo, D. A. (1995).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to the prediction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1), 61-66.
- Nudelman, G., Otto, K., & Dalbert, C. (2016). Can belief in a just world buffer mood and career prospects of people in need of risk protection? First experimental evidence. *Risk analysis, 36*(12), 2247-2257.
- Otto, K., Boos, A., Dalbert, C., Schöps, D., & Hoyer, J. (2006). Posttraumatic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of flood victims: The impact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5), 1075-1084.
- Otto, K., Glaser, D., & Dalbert, C. (2009). Mental health, occupational trust, and quality of working life: Does belief in a just world matt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6), 1288-1315.
- Pisarik, C. T., Rowell, P. C., & Thompson, L. K.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areer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5*(4), 339-352.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 Sutton, R. M., & Winnard, E. J. (2007). Looking ahead through lenses of justice: The relevance of just world beliefs to intentions and confidence in the fut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3), 649-666.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1), 17-31.
- Tien, H. L. S., Lin, C. H., & Chen, S. C. (2005). A grounded analysis of career uncertainty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in Taiwa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2), 162-174.
- Trevor-Roberts, E. (2006). Are you sure? The role of uncertainty in career.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3*(3), 98-116.
- Trevor-Roberts, E., Parker, P., & Sandberg, J. (2019). How uncertainty affects career behaviour: A narrative approach. *Australian Journal of Management, 44*(1), 50-69.
- Vignoli, E. (2015).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exploration among older French adolescents: The specific role of general trait anxiety and future school and career anxie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9*, 182-191.
- Weiner, B., Heckhausen, H., & Meyer, W. U. (1972). Causal ascriptions and achievement

오영아·정남운 /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진로불안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behavior: A conceptual analysis of effort and
reanalysis of locus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2), 239-248.

원 고 접 수 일 : 2022. 01. 13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4. 18

게 재 결 정 일 : 2022. 05. 24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and Career Anxiety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Moderated b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Younga Oh

Nam-Woon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udent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intolerance of uncertain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BJW-self) and career anxiety,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 A survey was conducted on undergraduate students from 11 universities in Seoul, Gyeonggi, Gangwon, Daegu, and Gyeongsang-do of South Korea, and the data from 301 respondents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tolerance of uncertain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JW-self and career anxiety. Additionally, CDMSE moderated the impact of BJW-self on intolerance of uncertainty, but only at high or average levels of CDMSE. Finally, CDMSE ha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the path from BJW-self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to career anxiety, and this effect was also significant only when CDMSE was low or average.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belief in a just world for sel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tolerance of uncertainty, career anxiety